

| | | | |
|---|----------------|-----|---------------|
|  | <h1>취재요청서</h1> | 부 서 | 대외협력실 |
| | | 담당자 | 김영환 실장 |
| | | 연락처 | 010-8402-1718 |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김0순 외 34명 2019다3226, 이0면 2019다220021, 김0순 외 4명 2019다216787)

□ 2024년 1월 25일(목) 오전 10시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일정: 2024년 1월 25일(목)

(1) 법원 입장 : 오전 9시30분, 대법원 동문 입구(생존 원고 참가 예정)

(2) 판결 선고 :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

(3) 입장 발표 : 판결 직후 법정동 입구

- 주최: 민족문제연구소(후지코시 소송 사무국. 김영환 대외협력실장 010-8402-1718)

민족문제연구소



-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https://www.minjok.or.kr>
- 이 보도자료에 더하여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민족문제연구소 (☎ 02-2139-0408)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minjok@minjok.or.kr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판결 선고 관련

(김0순 외 34명 2019다3226, 이0면 2019다220021, 김0순 외 4명 2019다216787)

1. 사건 개요

■ 원고 : 피해자 기준 23명(현재 생존 피해자 8명)

① 김0순 외 34명(피해자 17명)

② 김0순 외 4명(피해자 5명)

③ 이0면(피해자 1명)

■ 피고 : 주식회사 후지코시

○ 사건 개요

이 소송의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말기 군수기업 후지코시(不二越)의 도야마(富山) 공장에 강제동원 되어 가혹한 노동을 강요당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다. 원고들은 2003년 4월 일본의 도야마지방법원에 후지코시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금과 위자료 지급과 사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사법부는 후지코시가 원고들을 모집할 때 기망, 협박 등의 위법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점과 열악한 환경에서 중노동을 강요했다는 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그러나 2007년 9월 도야마 지방재판소는 그 권리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실효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고, 2011년 10월 24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일본 전범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동원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피해자들의 행복추구권, 생존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등을 침해하며 강제노동을 강요한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강제동원될 당시 13세부터 15세의 어린 소녀들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의 불법 정도는 더욱 중대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강제동원과 강제노동으로 입게 된 정신적,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귀국 이후에도 사회적 편견으로 차별과 멸시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 이후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13년 2월 14일 첫 제소를 시작으로 2015년 4월 7일과 5월 22일 잇달아 후지코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 경과

가. 2차 후지코시 일본 소송

2003.04.01. 제소

2010.07.29.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나. 후지코시 한국 소송①(김0순 외 34명)

2013.02.1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소

2014.10.30. 서울중앙지법 원고 일부 승소

2019.01.18.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2019.02.07. 대법원 피고 상고

다. 2차 후지코시 한국 소송②(김0순 외 4명)

2015.04.0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소

2016.11.23.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일부 승소

2019.01.30.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2019.02.20. 대법원 피고 상고

라. 3차 후지코시 한국소송③(이0면)

2015.05.22. 서울중앙지방법원 제소

2017.03.16.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 일부 승소

2019.01.23. 서울고등법원 항소 기각

2019.02.13. 대법원 피고 상고

2024.01.25. 상고심 판결선고기일

○ 원고 현황(피해자 23명, 생존 피해자 8명)

| 연번 | 피해자 | 출생 년도 | 사망 년도 | 동원 경위 |
|----|-----|----------|----------|---|
| 1 | 김0순 | 1929 | 생존 | 여수 출생. 여수서국민학교 6학년 재학 중 담임교사와 군청 직원의 권유로 동원 |
| 2 | 김0주 | 1931 | 생존 | 순천 출생. 아버지가 징용당하여 조부모와 언니와 함께 생활, 언니가 국민학교 교사의 권유로 근로정신대에 동원된 후 언니를 만나게 해 준다는 일본인 교사의 설득으로 근로정신대에 동원 |
| 3 | 나0자 | 1931 | 2023 | 나주 출생. 대정국민학교 6학년에 다니던 중 후지코시에 가면 공부도 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교사의 권유와 가지 않으면 아버지를 데려가겠다는 협박에 의해 동원 |
| 4 | 박0복 | 1930 | 2018 | 진주 출생. 길야국민학교 5학년 재학 중 일본인 교사가 수업 중에 어차피 모두 가게 되니까 먼저 가는 것이 유리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동원 |
| 5 | 배0례 | 1932 | 2018 | 인천 출생. 용화국민학교 5학년 재학 중 조선인 교사가 제비뽑기로 4명에게 일본에 가도록 강요하여 동원 |
| 6 | 서0련 | 1931 | 생존 | 경주 출생.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국민학교 담임교사의 설득으로 동원 |
| 7 | 안0수 | 1931 | 2022 | 마산 출생. 성호국민학교 6학년 재학 중 공장에서 일하고 꽃꽂이 하는 영상을 보여준 후 공부하고 돈을 벌 수 있다는 일본인 담임교사의 설득으로 동원 |
| 8 | 유0이 | 1926 | 2018 | 마산 출생. 16살에 잡화점 점원을 하던 중 구장이 일본 여학생이 꽃꽂이 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일본에 가면 돈을 벌고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권유하여 동원 |
| 9 | 이0순 | 1931 | 2023 | 순천 출생. 국민학교를 졸업하기 직전 일본인 교사의 강압적인 권유로 동원 |
| 10 | 이0실 | 1932 | 생존 | 서울 출생. 장충국민학교 고등과 1학년에 재학 중 친구의 아버지인 조선인 담임교사와 교장이 2년간 후지코시에 가면 고등과를 졸업한 것으로 하고 귀국 후 상급학교에 진학하도록 해주겠다는 설명에 동원 |
| 11 | 이0순 | 1932 | 생존 | 군산 출생. 군산공립 소화심상소학교 재학 중 학교에서 설명회와 영상 상영을 통한 설득과 담임교사의 명령으로 동원 |
| 12 | 전0남 | 1930 | 2022 | 마산 출생. 송오국민학교 6학년 재학 중 학교 강당에서 후지코시 남성 |

| | | | | |
|----|-----|------|------|--|
| | | | | 직원 2명이 선전 영상을 보여준 후 돈을 벌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설명과 담임교사의 권유로 동원 |
| 13 | 최0순 | 1931 | 2022 | 전주 출생. 해성심상소학교 6년 재학 중 후지코시 직원 남성 2명이 교실에 찾아와 후지코시에 가면 돈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조선인 담임교사가 강요하여 동원 |
| 14 | 임0숙 | 1932 | 2004 | 충주 출생. 1945년 교현국민학교 6년 재학 중 일본인 담임교사가 근로정신대 지원을 권유, 부모님이 반대하였으나 담임교사가 3번이나 집에 찾아와 강권하여 동원 |
| 15 | 박0득 | 1932 | 2012 | 대구 출생. 대구달성국민학교를 졸업한 1944년 3월경 일본인 담임교사와 남성 2명이 '조선 여성은 모두 가게 되니까 여차피 같거든 빨리 가는 편이 좋다'고 설득하여 지원 |
| 16 | 성0임 | 1930 | 2009 | 목포 출생. 1945년경 서석국민학교 재학 중 일본인 교사가 집에 찾아와 공부를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근로정신대 지원을 권유하여 동원 |
| 17 | 박0일 | 1922 | 2008 | 평남 출생. 1944년 가을 면장으로부터 징용 영장을 받고 일본인 인솔로 동원. 공장에서는 식당 청소, 조리 보조, 짐 운반 등의 노동을 함 |
| 18 | 김0순 | 1929 | 2022 | 군산 출생. 군산소학교 6학년 졸업 직전, 같은 반 여학생 60명 중 50명이 일본에 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제비뽑기로 동원 |
| 19 | 박0덕 | 1932 | 2020 | 목포 출생. 1944년 11월경 목포 산정국민학교 6학년 재학 중 근로정신대원으로 선정되어 동원 |
| 20 | 오0애 | 1930 | 생존 | 광주 출생. 1944년 3월 극락국민학교 졸업 후, 같은 해 가을 마을에서 면 직원에 의해 동원 |
| 21 | 이0우 | 1930 | 생존 | 경성부 연지동 출생. 1944년경 장충국민학교 고등과 2학년 재학 중 여름방학 직전 일본인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동원 |
| 22 | 최0영 | 1929 | 생존 | 대구 출생. 1944년 희도국민학교 6학년 졸업 직전 일본에 가면 공부를 시켜준다는 선생님과 모집원의 권유에 속아 동원 |
| 23 | 이0면 | 1931 | 2019 | 경성부 안암동 출생. 1944년 종암국민학교를 졸업할 즈음 교장 명의로 발송된 일본에 가면 중학교, 전문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안내문과 홍보책자를 보고 부모님과 상의도 없이 근로정신대에 동원 |